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榮喜)

『자귀나무 저택(ギンネム屋敷)』론

-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 -

濟州大學校 大學院

日語日文學科

朴 倫 嬉

2017年 2月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栄喜)
『자귀나무 저택(ギンネム屋敷)』론

-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 -

指導教授 蘇 明 仙

朴 倫 嬉

이 論文을 日語日文学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12月

朴倫嬉의 文学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12月

<국문초록>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栄喜) 『자귀나무 저택(ギンネム屋敷)』론

-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 -

박윤희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지도교수 소명선

본 논문은 현대 오키나와문학을 대표하는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栄喜)의 『자귀나무 저택(ギンネム屋敷)』(1981)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에 관해 고찰하였다.

제4회 스바루문학상(すばる文学賞)수상작인 『자귀나무 저택(ギンネム屋敷)』은 조선인과 일본군 ‘위안부’를 등장시킴으로써 오키나와인의 피해자 의식에 대한 인식문제를 제기하여 오키나와문학계에서도 그 의의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오키나와사회 내부의 중층적인 차별구조, 특히 조선인에 대한 차별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메타포로서의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이 의미하는 바를 오키나와의 근현대사의 상흔과 모순을 통해 고찰하였다.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제1장에서는 소설 속 배경이 되는 1950년대의 오키나와사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오키나와는 미국에 의한 점령 시기에 일본 본토와는 달리 직접 통치가 이루어졌다. 점령이 끝난 후에도 미군기지 확대로 오키나와인들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개입했고, 이러한 미국과 미군에

대한 이미지는 작품 곳곳에서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장에서는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전쟁의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결과 전쟁의 상흔을 입은 오키나와인들이 ‘자귀나무’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전쟁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해 오키나와 전역에 뿌려진 ‘자귀나무’는 전쟁의 상흔을 간직하면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자생하는 오키나와인의 삶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자귀나무 저택’이 상징하는 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소설에서 ‘조선인’의 고백으로 인해 ‘나’는 전쟁의 기억을 상기하게 되고, 비가시화된 오키나와전의 피해자가 가시화된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강제동원, 집단학살, 위안부 강제동원 등 오키나와전의 역사가 상기된다. 메타포로서의 ‘자귀나무 저택’은 국적 불명의 시신과 망령을 통해 비가시화된 망자들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키나와의 근현대사의 모순과 상처가 압축되어 있는 공간으로 ‘자귀나무 저택’은 오키나와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조선인’이 ‘나’에게 ‘자귀나무 저택’을 증여한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다. 전쟁의 기억이 혼재되어 있는 공간으로써의 의미가 내재되어있는 ‘자귀나무 저택’을 ‘나’에게 증여함으로써 전쟁의 피해자들과 전쟁의 기억을 전승하는 것이다. 소설에서 ‘자귀나무 저택’의 처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전쟁 피해자와 전쟁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숙제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귀나무 저택』은 전후 오키나와의 자연경관을 소재로 하여 오키나와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오키나와인들의 피해자의식에 대한 인식문제와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후 책임문제를 제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II. 본론	6
1. 1950년대의 오키나와사회	6
2. 메타포(Metaphor)로서의 ‘자귀나무’	13
3.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	21
4. 유산 상속의 의미	28
III. 결론	35
IV. 참고문헌	39
ABSTRACT	42

I. 서론

오키나와현 우라소에시(浦添市) 출신의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栄喜:1947~, 이하 마타요시라 칭함)는 1978년 「조지가 사살한 멧돼지(ジョージが射殺した猪)」란 작품으로 제8회 규슈예술제문학상(九州芸術祭文学賞)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자귀나무 저택(ギンネム屋敷)』(1981)으로 제4회 스바루문학상(すばる文学賞)을, 1996년에는 『돼지의 보은(豚の報い)』으로 제114회 아쿠타가와상(芥川賞)을 수상한 오키나와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1980년 12월호 「스바루(すばる)」지에 발표한 『자귀나무 저택』은 태평양전쟁 종결 후 8년이 지난 1953년을 시간적인 배경으로 하여 오키나와전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오키나와인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태평양전쟁말기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지상전이 전개된 오키나와는 본토결전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쟁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일본군에게 있어서는 절대적 요새였던 사이판이 함락된 후, 일본군은 오키나와에서의 지상전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나, 투입된 병력은 10만 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 중 3분의 1은 방위대로 불린 오키나와현지에서 조달된 보조 병력이었다. 미군의 경우, 지상전에 투입된 병력만으로도 18만 여명, 후방의 지원부대까지 합산하면 총 54만의 병력에 이른다. 이 전쟁으로 본토 출신의 병사(약 6만 5천명)와 오키나와에서 징집된 병사(약 3만명), 그리고 9만 4천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이외에도 군부와 일본군‘위안부’로 강제징용되어온 조선인 희생자 수는 약 1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¹⁾ 이와 같이 민간인 희생자 수가 더 많은 것에는 적군인 미군에 의한 희생보다 일본군에 의한 희생자와 일본군이 종용한 집단자결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자귀나무 저택』은 오키나와전으로부터 8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등장인물들은 모두 전쟁의 상흔을 입은 사람들이다.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후유증으로 고통스

1) 新崎盛輝(2015)『沖繩現代史 新版』岩波新書 pp.2-3 참조

러워하는 아내 쓰루(ツル)를 외면하고 하루코(春子)와 동거중인 ‘나’(宮城富夫)를 시점인물로 전개되는 이 소설에는 전쟁 중 오키나와의 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었으나 현재는 미군 엔지니어로 오키나와에 남아있는 ‘조선인’과 전시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징용된 ‘조선인’의 약혼녀 강소리(江小莉), 전쟁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아사토 할아버지(安里のおじ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생계를 위해 매춘 일을 하고 있는 아사토 할아버지의 손녀 요시코(ヨシコ), 그리고 고철을 주워 생활하는 유키치(勇吉)가 주요 등장인물이다.

소설은 유키치가 ‘조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요시코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다. 유키치는 요시코의 할아버지와 ‘나’에게 이 사실을 밝히고 조선인에게 배상금을 받아낼 계획을 세운다. ‘조선인’의 집으로 찾아간 세 남자에게 ‘조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정하지 않고 흔쾌히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나’에게 따로 방문해줄 것을 부탁한다. 다시 찾아간 ‘나’에게 ‘조선인’은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며칠 뒤 모든 재산을 ‘나’에게 증여하고 자살한다.

스바루문학상 발표 당시의 선평을 보면 『자귀나무 저택』에 대한 평가는 양분화되어 있다. 먼저 아키야마 슌(秋山駿)은 절실한 충박감이나 모티프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조선인’과 ‘나’와의 관계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²⁾ 미우라 데쓰오(三浦哲郎) 또한 아키야마와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의 언동과 인간관계의 애매함을 지적하고 있다.³⁾ 이와는 반대로 다쿠보 히데오(田久保英夫)의 경우 ‘나’의 시점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갑작스레 ‘조선인’의 독백으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방법상의 파탄은 발견되나, 등장인물들에 현실미가 있고, 오키나와인의 전쟁의 상흔을 잘 그려내고 있다고 한다.⁴⁾ 구로이센지(黒井千次)는 등장인물의 다양성에서 오는 “독특한 국제감각”과 설명이 배제되어 있는 문장은 읽는 도중, 이전의 사건이 떠오르는 효과가 작품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⁵⁾

그렇다면 지역문단에서의 반응은 어떠할까? 『자귀나무 저택』이 단행본으로 간

2) 秋山駿(1980)『第4回 文学賞発表 選評 小説らしきの罪』(『すばる』12) p.126
 3) 三浦哲郎(1980)『第4回 文学賞発表 選評 感想』(『すばる』12) p.128
 4) 田久保英夫(1980)『第4回 文学賞発表 選評 選撰』(『すばる』12) p.129
 5) 黒井千次(1980)『第4回 文学賞発表 選評 硬直化の傾向』(『すばる』12) p.131

행되자, 『오키나와타임스(沖繩タイムス)』에서는 전쟁으로 생활을 파괴당한 동일한 피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심리를 지극히 오키나와적인 형태로 소설화”⁶⁾한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오카모토 게토쿠(岡本恵徳)는 소설 속에서 오키나와인이 ‘조선인’에게 배상금을 갈취하는 것은 작가인 마타요시가 언급한 “역사의 후유증”⁷⁾으로 전쟁이 끝난 시점에도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⁸⁾ 하나다 도시노리(花田俊典) 역시 ‘조선인’이라는 존재를 통해 오키나와의 가해자성이 드러나고, 전후에도 뿌리깊이 남아있던 차별의식이 문체화되고 있으며, 오키나와인들의 피해자의식을 전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⁹⁾

이와 같이 『자귀나무 저택』을 둘러싼 담론의 중심에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인의 존재를 통해 오키나와를 상대화하고 있다는 관점이 대부분이다. 『자귀나무 저택』에 관한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신조 이쿠오(新城郁夫)의 논고는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남성 등장인물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신조는 소설 속 여성 등장인물에 주목한다. 신조는 “오키나와인 남성과 조선인 남성을 둘러싼 중층적인 피식민자 남성끼리의 적대적 관계는, 그 폭력적 관계의 저변에, ‘여자’들의 소유와 교환, 그리고 살해와 폐기라는 프로세스 그 자체를 채워넣어 불가시화”¹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동일한 피해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구조를 부각시키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조선인’이 강소리를 목 졸라 숨지게 하는 사실이 상징하는 것처럼 여성들의 목소리를 빼앗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귀나무 저택』은 전쟁 시기부터 미군점령기에 걸쳐 오키나와에 있어서 “중층화된 레이프(성폭행)를 그린 문학”일 뿐만 아니라 레이프당한 여성의 말을 텍스트 표상에서 완전히 빼앗아버렸다는 점에서 “문학에 의한 레이프라는 사태를 반복적으로 현재화하는 텍스트”¹¹⁾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6) 「差別の心理描く 敗戦直後の沖繩舞台に—『ギンネム屋敷』又吉栄喜著」(『沖繩タイムス』1981.01.24)
7) “미군이 오키나와의 피해 흔적을 카무플라주하기 위해 뿌린 자귀나무는 인간성의 파괴까지 카무플라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역사의 후유증의 파열부터 인간의 보편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약한 인간들의 약성, 혹은 약한 인간성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막연히 생각해 왔습니다.”
又吉栄喜(1980)『第4回文学賞発表 受賞のことば』(『すばる』12) p.125
8) 岡本恵徳(1996)『現代文学にみる沖繩の自画像』高文研 p.74
9) 花田俊典(2006)『沖繩はゴジラか—〈反〉・オリエンタリズム／南島／ヤポネシア—』花書院 p.46
10) 新城郁夫(2007)『到来する沖繩—沖繩表象批判論』インパクト出版会 p.162
11) 앞의 책 pp.130-176참조

이 밖에도 『자귀나무 저택』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무라카미 요코(村上陽子)와 나카이마 겐이치(中井眞健一)의 논고를 들 수 있다. 먼저 무라카미 요코는 남성 등장인물이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 냉전구조를 근거로 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어 왔다고 지적하며¹²⁾ 여성 등장인물의 위치를 분석하였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여성들의 텍스트상의 공소화(空所化)와 남성의 말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가끔 타자의 말에 의해 표상되어 통어(統御)된 이상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에 집중한다. 나카이마 겐이치의 경우 ‘조선인’의 독백이라는 서술방법과 등장인물들의 폭력성에 대해 침묵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¹³⁾

한편, 국내에서의 연구형태를 살펴보면 조선인이라는 존재를 통한 오키나와인들의 인식 변화와 조선인들의 차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젠더적 접근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조선인에 의한 오키나와인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연구로 조정민이 마타요시의 『자귀나무 저택』과 김정한의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를 비교 분석하여 오키나와가 기억하는 전후상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오키나와와 ‘조선’이 ‘전쟁’ ‘차별’ ‘억압’ ‘피지배’등 공통점을 기준으로 두 작품에 나타나는 전후의 양상이 오키나와에서는 어떠한 반성과 지각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패전 이후에도 계속되는 식민지 구조의 잔재와 피지배자, 피해자 구조로만 인식되기 쉬운 오키나와와 ‘조선’을 상대화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¹⁴⁾ 광형덕은 마타요시의 문학 중 타자와의 교섭과정에 주목하며 오키나와가 근대 이후 구제국과 신제국이 수행하는 전쟁에서 가해자로서 참여하였다는 작가의 역사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자귀나무 저택』은 전전(戰前)에서 전후까지의 오키나와인과 조선인의 관계를 회유하는 작품으로 타자로 인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⁵⁾

젠더적 관점의 연구로는 전후 오키나와에 관한 젠더 표상의 양상에 대해 고찰

12) 村上陽子(2014)「<亡霊>は誰にたたるか:又吉栄喜「ギンネム屋敷」論」(「地域研究」3 沖縄大学地域研究所) p.119

13) 中井眞健一(2015)「又吉栄喜「ギンネム屋敷」論—「悲鳴」としての「握りこぶし」」(「立教大学日本大学」)15 p.15

14) 조정민(2010)「오키나와(沖繩)가 기억하는 ‘전후(戰後)’ : 마타요시 에이키 「자귀나무 저택」과 김정한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45)

15) 광형덕(2016)「마타요시 에이키 문학에 나타난 ‘타자’와의 교섭과정: “오키나와인 주체의 자세”를 묻다」(「탐라문화」)49)

한 조정민의 논문과¹⁶⁾ 여성 주인공이 일본군‘위안부’였던 점에 주목하며 오키나와문학에서 위안부의 표상의 문제를 고찰한 소명선의 논고를 들 수 있다. 소명선은 일본문학과 지역문학으로서의 오키나와문학이 각각 ‘위안부’라는 역사적 타자를 어떻게 형상화해 왔는지 분석하여 ‘위안부’ 표상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역사적 타자를 상대화하는 시점 없이 작가의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거나, 작가의 리얼리즘에 대한 욕망으로 표상의 폭력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은 도쿄 중심의 일본문학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를 형상화한 오키나와문학이 표상의 방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⁷⁾

이와 같이 『자귀나무 저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으나,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본고에서는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이 상징하는 바를 오키나와의 근현대사의 상흔과 모순을 통해 고찰한다.

제1장에서는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고찰하기 앞서 『자귀나무 저택』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의 시대상황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메타포로서의 ‘자귀나무’가 어떠한 의미를 산출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본다.

제3장에서는 ‘조선인’이 살고 있는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에 관해 고찰한다. 전쟁에서 숨진 국적불명의 유골이 묻힌 공간, 그리고 망령이 출몰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메타포로서의 ‘자귀나무 저택’의 의미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자귀나무 저택’이 ‘조선인’에게서 오키나와인 ‘나’에게로 증여되는 점에 주목하여 오키나와인에게로의 증여의 의미와 함께 증여자와 피증여자로서의 조선인과 ‘나’의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6) 조정민(2015)「전후 오키나와 젠더 표상의 탈구적 가능성에 대하여」(『일본학』41 동국대학교)

17) 소명선(2016)「오키나와문학 속의 일본군 ‘위안부’ 표상에 관해」(『일본문화연구』58)

II. 본론

1. 1950년대의 오키나와사회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연합군(실제로는 미국의 단독점령)에 의한 점령 체제에 들어간다. 그러나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는 점령 형태가 달랐다. 본토는 연합군최고사령부(GHQ)¹⁸⁾에서 일본정부로 명령을 내려 일본의 통치기구를 이용하는 간접 통치 형태였지만 오키나와는 군정을 설치한 직접통치가 이루어졌다. 6년 반간 군사점령이 지속되고 있던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같은 날에 체결되고 이듬해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다. 일본 본토에는 ‘주권’을 회복시키는 한편, 오키나와는 미군 주둔이라는 주권 박탈 상태를 합법화한다는 서로 모순되는 수속이 취해졌던 것이다.¹⁹⁾ 대일 평화조약 제3조는 류큐제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주민의 국적이 일본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은 미군의 엄중한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류큐제도의 출입에 관해서는 미국민정부(米国民政府)²⁰⁾가 발행한 도항 증명서(여권)를 발급받지 않으면 안됐다. 미국민정부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여권 발급을 정지하곤 했는데, 이와 같이 여권 발급 정지를 통해 미국민정부는 오키나와 내의 정치활동과 언론활동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실제로 도쿄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여름방학에 귀성했다가 도쿄로 돌아가려 했지만 여권이 나오지 않아 퇴학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²¹⁾

이와 같이 대일평화조약 제3조에 의해 미군정을 유지하게 된 오키나와는 일본에서부터 분리되어 미국에 의한 배타적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1950년에 한반도

18) “연합군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SCAP/General Headquarters GHQ)”

19) 개번 매코맥, 노리마쯔 사토코/정연신 역(2014)『저항하는 섬, 오키나와』창비 pp.140-141

20) 琉球列島米国民政府 (United States Civil Administration of the Ryukyu Islands) 는 미국군이 오키나와에 설립한 통치기구이다. 약칭으로 “USCAR”로 칭하거나 “미국민정부(米国民政府)”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1945년 4월 1일에 오키나와전에 미국군이 오키나와 본토에 상륙한 날과 같은 날 설립되어 1972년 5월 14일 오키나와가 본토로 복귀하기 하루 전날 폐지되었다.

위키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s://ja.wikipedia.org> 참조. 검색일자:2016/10/01

21) 新崎盛輝(2015)『沖縄現代史 新版』岩波新書 p.10

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오키나와를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아시아의 거점으로 기지 확대와 강화를 추진한다. 미군은 곧 군용지 확장에 들어갔고, 토지를 빼앗기게 된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갔고, 1956년 미국의 군용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투쟁과 같은 사태를 낳기도 했다.

『자귀나무 저택』은 대일평화조약이 공포된 이후인 1953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후 8년이 지났지만, 전쟁으로 파괴된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는 자들이다. 현재 시점은 점령 정치가 종식된 1953년이지만, 시정권이 미군에게 넘겨진 오키나와의 경우, 미군에 의한 점령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소설 속에는 점령시기의 오키나와의 실상과 미군에 대한 인식이 등장인물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자귀나무 저택』은 ‘조선인’이 요시코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유키치의 주장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유키치는 아사토 할아버지, 그리고 ‘나’와 함께 조선인에게 배상금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조선인’의 집으로 찾아간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조선인’은 흔쾌히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 오천 B엔 정도로는 적겠습니까?”²²⁾라고 되묻는 장면이 있다. 여기서 ‘조선인’이 제시하는 금액의 단위 ‘B엔’이라는 것은 군표로, 이것은 1950년대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오키나와에서만 통용되었던 통화이다. 오키나와의 경우 1948년부터 1958년까지는 군표인 ‘B엔’이, 1958년부터 일본 본토로 복귀되는 1972년까지는 달러가 기본 화폐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도 미군에 의한 점령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게 된 세 사람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한다. 일주일 후에 제시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다.

“그 녀석에게 받아내는 돈은 부모형제를 학살당한 변상금이기도 해” 유키치는 뒤돌아 보자마자 빠른 어조로 말했다.

“조선인이 죽인 게 아니잖아. 오히려 같은 편이었지.”

“같은 편? 지금은 미국 편이잖아?”

유키치는 미군에게서 받은 군화에 발을 넣었다.

22) 又吉榮喜(1981)『ギンネム屋敷』集英社 p.146 *한국어번역은 논자에 의한 것이며, 이하 『자귀나무 저택』으로부터의 인용문에는 페이지 표기만 하기로 하겠다.

“あれから取るのは親兄弟を殺された弁償金でもあるんだ”勇吉は振り向きぎ早口で言った。

“朝鮮人が殺したんじゃないだろ、むしろ、味方だったんだろ。”

“味方？今はアメリカの味方じゃないか”

勇吉は米軍から払い下げの軍靴に足をとおした。(p.156)

그런데 상기의 인용에서 유키치는 ‘조선인’에게 받게 될 돈을 부모형제를 학살당한 것에 대한 배상금이라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유키치에게 있어 ‘조선인’은 곧 미국인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미군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교차되고 있는 부분이다. 일찍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조선인’이 미군 소속 엔지니어로서 현재는 점령자 미국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서 ‘조선인’에 대한 오키나와인의 감정은 점령자에 대한 적대감과 함께 열등감과 수치심을 동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950년대의 미군 소속의 ‘조선인’이 유키치에게는 미군과 중첩되어져 있는 것이다. ‘조선인’을 미군과 동일시하는 시선은 소설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밤에는 교섭하러 가지 못한다. 조선인이 살고 있는 저택은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먼저 살던 사람은 일 년쯤 전에 조선인에게 집을 팔고 남미로 이주했다. 그 집에서는 오래 살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조선인이 카빈총이나 피스틀을 소지하고 있어서 밤에 찾아오는 자를 미군의 습관에 따라 발포한다는 소문이 신경 쓰였다.

“.....집을 주면, 진차로 부락을 부숴버릴까?”

(중략)“...그래도 그 자는 총을 갖고 있잖아.”

夜は交渉に行けない。朝鮮人が住んでいる家は幽霊が出るという噂があった。先の住人は一年ほど前、朝鮮人に家を売り、南米に移住した。その家には住みつかなかった。しかし、私達は何よりも、朝鮮人がカービン銃やピストルを所持して夜に訪れる者を米軍人の習慣に倣い、発砲するという噂が気になった。

“.....오도したら, 電車で部落潰されんかな?”

(中略) “...다가,あれ야,아, 피스틀持つてるぞ오” (p.143)

상기의 인용문을 통해 ‘조선인’=미군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유령 저택이라는

소문 속에 나타나고 있고, 미군과 같이 무기를 소지하고 “미군의 습관”에 따라 오키나와인을 공격할 것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오키나와인들에게 비취지는 미군의 이미지는 폭력적이고 그로 인한 미군에 대한 반감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루카와 데쓰시(丸川哲史)는 “주인공이 조선인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작가가 전후에 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종의 역사의식이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굳이 ‘조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전(戰前)과 이어지는 연속성 속에 잠재해 있는 오키나와인들의 차별의식을 드러낸다”²³⁾고 했다. 상기의 인용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근거에는 전부터 이어져온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스스로 인정하고, 역전된 위치에서 무의식적으로 ‘조선인’에 의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심리로도 볼 수 있다.

‘조선인’에게 배상금을 받으러 가는 그들은 ‘조선인’이 미군 소속이라는 점에서 미군과 동일시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일찍이 차별의 대상이었던 ‘조선인’을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오키나와인의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굴절된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1956년에 발표되었던 프라이스 권고²⁴⁾는 오키나와를 핵 기지로서 미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생각하고 군용지 정책을 포함하여 당시 미군 지배 방식을 정당화하였다. 정당한 보상 없이 토지수탈과 위협에 강제적으로 협상해야 했던 민중들의 불만은 고조되어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지의 수는 오키나와 북부로 확장되었고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도 기지 문제로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후, 조약 개정이 이루어지는 1960년까지 일본 본토의 기지의 약 4분의 1이 감소하였다. 일본 본토에서 철수한 해병대가 오키나와로 이전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 본토의 반미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오키나와가 희생된 것이다. 마루카와 데쓰시는 “오키나와전을 겪은 민중들에게 ‘기지’는 폭력의 흔적인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는 야마토의 ‘기지’를 보충하여 대

23) 마루카와 데쓰시/장세진 역(2010)『냉전문화론』너머북스 p.222

24) “1955년 6월 4자협 방미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10월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프라이스(Melvin price)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오키나와로 파견하였다. 조사단이 의회에 제출한 미 하원 군사특별분과위 보고서가 이른바 프라이스 권고(price report)다.” 아라사키 모리테루/정영신 외 역(2008)『오키나와 현대사』논형 p.37

신해서 떠맡게 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이중의 부조리로 여겨지고 있다.”²⁵⁾라고 하고 있다. 오키나와인들에게는 종전으로 인해 평화가 도래한 것이 아닌 ‘미군기지’라는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게 된다.

기지 증가는 자연스럽게 미군들의 범죄와 매춘시설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적장애를 지닌 손녀딸이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 배상금을 받아내려 한 것은 단지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1950년대의 오키나와는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었다.

‘조선인’이 강소리를 살해한 사실을 고백하는 이야기 중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경찰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시다. 피해자가 조선인 매춘부여서일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미군엔지니어의 조선인이어서 일까요?”²⁶⁾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군 소속인 ‘조선인’이 미군과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군정 시기의 치외법권 문제와 조선인차별문제 등 1950년대의 오키나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로 복귀하는 시기까지는 오키나와에는 미군 체포권과 재판권이 없었기 때문에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해도 오키나와의 경찰은 범인을 미군에 인도해야 하고 재판권도 없었다. 복귀 후에는 지위 협정에 입각하여 기지 밖에서의 수사권과 재판권은 모두 일본 측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나 기지 시설 안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범인이 기지내로 도주하면 미국의 신병 인도는 불가능했다. 오키나와 전역이 치외법권이었던 것이 복귀에 따라 기지 시설 내만이 치외법권으로 범위가 좁혀졌을 뿐이다.²⁷⁾ 대부분 기지주변에서 미군에 의한 범죄로 오키나와인들에게 반미감정이 고조되는 결과를 낳았지만 미국의 문화도 급속도로 흡수되었고, 작품 곳곳에서도 미국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인’이 ‘자귀나무 저택’을 증여하고 자살하자 ‘나’의 집으로 찾아온 것은 오키나와인 경찰이 아닌 미군이었다.

25) 마루카와 데쓰시/장세진 역(2010)『냉전문화론』너머북스 p.212

26) 又吉栄喜(1981)『ギンネム屋敷』集英社 p.186

27) 쿠리마 야스오/제주발전연구원 역(2003)『오키나와에서 배운다II』도서출판오름 p.256

2세가 말했다. 멧멧한 가름한 얼굴이다. 나이차(내지인) 2세라고 느끼자, 힘이 빠졌다. 이젠 다 틀렸다.

二世が言った。のっぺらぼうの細長い顔だ。ナイチャー（内地人）二世だ、と私は感じ、力がぬけた。もうだめだ。(p.199)

“원래는 저 사람의 재산은 조선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군속이기 때문에 미군에 몰수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국가입니다. 본인의 의지를 우선합니다. 즉, 당신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本当はあの人の財産は朝鮮にいる身内に送るのが当然です。そうでなければ軍属ですから米軍に没収されるべきです。しかし、米国は民主主義国です。本人の意志を優先します。すなわち、あなたのものになります。”(p.207)

‘조선인’의 자살 후 재산을 증여한 ‘나’에게 찾아온 미군은 재산을 증여한 이유를 묻고 재산 증여에 대한 절차와 사체 처리 문제까지도 관여하게 된다. 오키나와에서의 ‘조선인’의 죽음과 오키나와인에게로 재산 증여라는 사건의 처리를 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모습은 흡사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라는 삼자의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 후의 미국의 개입과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의 일본을 미군이 점령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조선인’에게 증여받은 ‘자귀나무 저택’의 처분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 유령의 집을 팔자. 살 사람은 유키치에게 찾도록 하면 돼. 경매를 해도 좋고, 신문에 광고를 내야지. 스님을 불러 태워버릴까도 방금 생각했지만 역시 아깝다…… 일을 하자.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술이 있고, 여자들과 미군들 중에…… 하루코와 함께. 하루코를 마담으로 해서…… 이 부락을 나가자. 기지 가까운 마을로 가자. 있는 곳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지. 쓰루에게도 돈은 주지 말아야지. 어차피 그 남자가 뺨을 게 분명하다. 미군을 상대하는 가게가 성공해서도 늦지 않아. 미군은 바에서는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다 쓴다고 들었다. 영어를 배우자……

この幽霊屋敷を売ろう。買い手は勇吉に探させてもよい。競売にしてもよい。新聞に広告を出そう。

坊さんと呼んで焼き払おうとも、ついさっき考えたが、やはりもったいない。……働こう、騒がしい音楽の中で、酒の中で、女達や米兵達の中で……春子と一緒に、春子をマダムにして……。この部落を出よう、基地の近くの街に行こう。居場所は誰にも教えない。ツルにも金はやらない。どうせ、あの男が巻きあげるにちがいないのだ。米兵相手の店が成功してからやっても遅くはない。米兵は、バーではありったけの金を使うと聞いている。英語を覚えよう。(pp.210-211)

‘조선인’에게 증여받은 ‘나’는 자귀나무 저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할 것을 생각한다. 미군에 대한 열등감과 수치심을 나타내던 주인공이지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군과 관련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어를 배울 것을 다짐하는 ‘나’를 통해 기지 주변경제가 활성화되어 기지 수입에 의존하게 된 현실을 인지하고 미군문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은 1950년대 오키나와의 시대상황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메타포로서의 ‘자귀나무’

본장에서는 ‘자귀나무’가 소설 속에서 메타포로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메타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확인하기로 하겠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메타포는 그리스어 ‘metaphora’가 어원으로 meta(over)+phora(carrying) 즉, 의미의 이동과 전환을 의미하는 ‘전이하다(transfer)’ 혹은 ‘옮기다(transport)’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유사성이 존재하는 두 개의 주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은유적 표현 방법을 말한다. ‘-같다’, ‘-듯하다’와 같이 비교를 나타내는 말을 숨기고 압축된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은유(隱喩)라고 하며²⁸⁾ 단순한 대치나 생략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해 새로운 의미의 질적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비평적 용어로서는 일반적으로 두 사물이나 사건 사이의 유사 관계라고 정의되어지고 있는 메타포는 통상의 문맥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가 포함된 문맥에 전이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²⁹⁾ 두 개의 주제의 통념 체계의 상승작용을 위해서 두 개의 주제는 각각의 의미가 확장하는 것이다. 상식적인 유사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유사성을 창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표준적인 사전적 의미를 쓰는 것이 아닌 그 언어의 의미가 통하고 다른 언어로 바꿔 말할 수 있는 “연상된 통념의 체계(system of associated commonplace)로 특징적인 측면을 전경화하고 배경화하는 구조로 조직화”³⁰⁾되는 것을 말한다.

마타요시는 스바루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작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米軍は破壊の痕跡をカムフラージュするために沖縄全土にギンネムの種を撒きました。人間性の破壊まではカムフラージュできなかったはずですが。歴史の後遺症の裂目から人間の普遍性がどのように出てくるのか、弱い人間たちの悪性、もしくは、人間性の弱さがどのように発展するのか、漠然

28)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문학비평용어사전.하』새미 p.614.

29) 다우베 드라이스마/정준형 역(2006)『기억의 메타포』에코리브르 p.25

30) 石原千秋ほか(1991)『読むための理論—文学・思想・批評』世織書房 pp.198-201 참조

とながらも考えつづけおりました。”

“미군이 오키나와의 피해 흔적을 카무플라주하기 위해 뿌린 자귀나무는 인간성의 파괴까지는 카무플라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역사의 후유증의 과열부터 인간의 보편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약한 인간들의 악성, 혹은 약한 인간성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막연히 생각해 왔습니다.”³¹⁾

전쟁으로 파괴된 흔적을 덮기 위해 미군에 의해 심겨진 ‘자귀나무’, 이 ‘자귀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오키나와 각지에 번식하고 있다. 마타요시는 이러한 일상의 풍경에서 미군의 후속 조치가 오키나와인들의 표면적인 상처는 가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 다양한 형태로 현출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마타요시가 말하는 ‘자귀나무’가 소설 속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단행본으로 간행된 『자귀나무 저택』의 에피그라프(epigraph)에는 작가에 의한 자귀나무에 대한 기술이 있다.

熱帯アメリカ原産の常緑樹。花は白色で芳香を放す。高さ十メートルに達する。終戦後、破壊のあとをカムフラージュするため、米軍は沖縄全土にこの木の種を撒いた。

열대 아메리카 원산의 상록수. 꽃은 흰색으로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다. 10여미터의 높이에 달하고 종전 후 파괴의 흔적을 카무플라주³²⁾하기 위해, 미군은 오키나와 전역에 이 나무의 씨를 뿌렸다.(p.140)

서론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오키나와전에서는 본토군인이 약 6만 5천명의 군인과 오키나와 군인 약 3만 명과 민간인이 약 9만 4천여 명이 희생되었다.³³⁾ 태평양전쟁 중 최고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키나와는 24만 명의 사망자 중 13만여 명이 오키나와 주민으로 당시 주민의 3분의 1의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다. 자귀나무 저택의 등장인물들도 오키나와전쟁의 피해자들로 전쟁의 상흔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화자인 ‘나’는 전쟁 중에 아들을 잃고 그 계기

31) 又吉栄喜(1980)「第4回すばる文学賞発表 受像のことば」(「すばる」12) p.125

32) “카무플라주(프랑스어camouflage) 불리하거나 부끄러운 것을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의도적으로 꾸미는 일. ‘거짓 꾸밈’, ‘위장’으로 순화”

33) 新崎盛輝(2016)『日本にとって沖縄とは何か』岩波新書 p.4

로 아내인 쓰루와 별거 중이다. 쓰루가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며 직장도 구하지 않고 술집에서 일하는 하루코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동거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들을 잃고 ‘나’는 부모에게 쓰루를 맡기고 뭐든지 잊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코를 찾았다.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하루코를 선택한 ‘나’는 쓰루에게서는 아들을 잃은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쓰루의 부모형제가 전쟁으로 전멸해버린 것은 나도 신경이 쓰였다. 그때마다, 가족이 없는 것은 하루코도 마찬가지다, 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꿈에는 쓰루가 나왔다. 강렬한 꿈이었다. 언제까지나 잊혀지지 않는다. 날아간 아들의 목은 아빠, 아파요 라고 외치며, 끝없이 굴러간다, 나도 뭔가 외치며 열심히 그 목을 쫓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뒤돌아보니 쓰루가 얼굴을 내 어깨 너머로 붙들고 내밀며 씨익 하고 웃는다. 나에게 업혀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꿈. 땅에 묻혀서 발버둥치는 아들을 나는 필사적으로 삼으로 파내려고 하지만 파면 팔수록 흙에 뒤덮여 가는 것이다. 자세히 보니 바로 맞은편에 쓰루가 큰 목소리로 웃으며 손으로 흙을 떠서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ツルの親兄弟が戦争で全滅してしまったのは私も気にはなったが、そのつど、身内がないのは春子も同じだ、と自分を慰めた。夢にはツルが出た。鮮烈な夢だった。いつまでも忘れられない。ふっとんだ息子の首は父ちゃん、痛いよと叫びながら、どこまでもころがり、私も何か叫びながら懸命にその首を追うのだが、足が動かない。後ろをふり向くとツルの顔が私の肩ごしにニユッと出て、ニヤッと笑った。私におぶさっていたのだ。もう一つの夢。土に埋まってもがいている息子を私は必死にスコップで掘り出そうとするが、掘れば掘る程、土は盛られていくのだ。よく見ると、すぐ向かいでツルが大声で笑いながら手で土をすくって、かぶせているではないか(p.189)

나는 외동아들을 잃은 증오와 슬픔은 이상하게도 열어지고 있다. 쓰루를 잊으려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다.

私は一人の息子を失った憎悪と悲しみは不思議と薄らいでいる。ツルを忘れようとしているために違いない。(p.159)

쓰루를 전쟁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매개체로 생각하는 ‘나’는 전쟁에 대한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하루코와 섹스할 때는 쓰루를 잊을 수 있었다”³⁴⁾고 하는 ‘나’는 전쟁=쓰루 라고 생각한다. 쓰루로 인해 전쟁 트라우마가 상

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의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꿈으로 표출된다. 꿈은 무의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잃은 아들을 구하지 못하는 꿈을 꾸는 것은 죄책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쓰루에 대한 죄의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루코는 쓰루에게 “이 사람이 없으면 살수 없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니 나와 비교하면 훨씬 더 만족스러울 거예요”라고 하며 정신적으로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쓰루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에 의해 여성들은 정반대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쓰루에게서 여성성을 못 느끼는 ‘나’는 조선인에게 배상금을 받고 나면 쓰루를 요시코의 할아버지와 결혼시킬 생각까지 한다.

쓰루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잡초가 무성한 길을 비틀거리며 멀어지는 쓰루에게 달려가, 어깨를 빌려주고, 바래다주고 싶었다. 그러나 하루코의 흰 피부와 부드러움을 생각하고, 참았다.

ツルが憐れに思えた。雑草だらけの道をよろめいて遠ざかるツルに駆け寄り、肩を貸し、送り届けたかった。しかし、春子の肌の白さや柔らかさを思いおこし、こらえた。
(p.150)

쓰루를 잊는 일을 전쟁의 기억을 잊는 일로 여기는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쓰루를 보며 쓰루가 안쓰럽게 느껴지지만 하루코의 육체를 떠올리며 참게 된다. 쓰루에게는 느끼지 못하는 여성성을 하루코의 육체를 통해 전쟁의 기억을 잊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나’는 하루코의 보호자역할을 자청한다. 하루코가 자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쓰루보다는 하루코를 보호해야 하는 상대로 생각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 두 여성은 정 반대의 이미지와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말기 요나바루의 별관에 작은 도랑에서 검게 더럽혀진 얼굴을 내밀었을 때, 이미 하루코는 모든 것을 깨달은 듯이 조용했다.

34) 又吉栄喜(1981)『ギンネム屋敷』集英社 p.149

戦争末期、与那原の原野の小さい塚から黒く汚れた顔を出していた時、すでに春子は悟りきったようにもの静かだった。(p.157)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코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용한 성격이었던 하루코가 모든 것을 깨달은 듯이 조용한 점이 강조되는 것을 고려할 때 하루코와는 전쟁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하루코에 비해 “예전엔 말수가 없었다. 지금의 하루코와 같았다”³⁵⁾라고 하는 것처럼, 쓰루가 다변적으로 변한 것도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거침없이 많은 말을 내뱉는 쓰루를 통해 전쟁의 기억이 상기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본 작품의 오키나와 여성들은 모두 남성들에 의해 정체성을 잃은 인물로 등장한다. 전후에도 이어지는 제국주의적 시선으로 남성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지어진다. ‘나’는 쓰루의 의지와는 상관하지 않고 쓰루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생각하며 쓰루를 요시코의 할아버지나 유키치와 결혼시키려고 생각하기도 한다. 쓰루에게 여성성을 느끼지 못하는 ‘나’는 쓰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다시 꿈을 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꿈이다, 라고 어렴풋이 생각했다. 뒤척였다. 방금 꾸 꿈이 조각조각 되살아났다. 유키치는 쓰루를 등 뒤에서 범하고 있었다. 쓰루는 나를 노려보며, 매춘부가 되었으니, 당신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고 있었다. 쓰루는 웃었지만, 이가 하나도 없었다.

戸をたたく音が聞こえた。夢だ、とぼんやり思った。寝返りをうった。今しがたの夢が切れ切れによみがえった。ツルは勇吉に背後から犯されていた。ツルは私をにらみ、売春婦になったから、あんたの世話にはならないよ、と言った。ツルは笑ったが、歯は一本もなかった。(p.198)

여성성을 느끼지 못하던 쓰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고 자신이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나’는 꿈속에서 유키치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쓰루의 꿈을 꾸게 된다. 다른 이성과의 교제로 인한 여성성의 회복과 쓰루를 버린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이 무의식중에 내재되어 꿈으로 표출되고 있다. 하루코에게 받

35) 앞의 책 p.193

은 용돈을 나누어 매달 백 엔씩 유키치를 통해 쓰루에게 전달하던 ‘나’는 쓰루를 버린 죄의식을 그렇게라도 해소하고자 하였다. 꿈속에서 쓰루가 “당신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것은 쓰루에게 다른 남자가 생김으로써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와의 연결고리가 단절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가 없는 것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앞서 언급하고 있듯이 쓰루의 말 수가 많다는 점을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킴을 관련지었던 ‘나’는 이가 없어 말을 못하게 되었으므로 쓰루로 인한 전쟁에 대한 기억이 상기되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쓰루를 피해 살았던 ‘나’는 더 이상 쓰루에게 죄의식을 느끼지도 전쟁의 기억을 떠올릴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요시코는 부모로부터 남들 눈에 띄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유일한 가족인 할아버지마저 한쪽 다리를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춘까지 해야 하는 전쟁의 피해자이다.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은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생존을 유지해야 했다. 신조 이쿠오는 “조선인에 의해 살해되는 강소리와 할아버지인 아사토할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고 유키치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지적장애’인 요시코를 같은 전쟁의 피해자 사이에 의해 서로 잠식하는 것이라는 오키나와 남성과 조선인 남성을 둘러싼 중층적 피식민자 남성 사이의 적대적 관계는 그 폭력적 관계의 저변에 여성들의 소유와 교환, 그리고 살해와 폐기라는 프로세스를 넣고 그리고 불가시화하려고 하는 것”이며 오키나와전으로 인한 같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쟁경험이 구축하는 공동성을 그녀들은 영위할 수 없으며 서로 잠식하려는 모습에서 미군점령의 지배적 시스템을 현재화하는 기지 의존적 경제관계가 그녀들을 주체로 성립할 수 없게 한다³⁶⁾고 하고 있다.

요시코에게 일방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 유키치는 고철을 주워 생활하고 있다. 몇 번이고 헌병(MP)³⁷⁾과 경찰(CP)³⁸⁾에게 잡힌 요주의 인물이다.

36) 新城郁夫(2007)『到来する沖縄—沖縄表象批判論』インパクト出版会 p.162

37) Military Police 헌병

38) Civilian Police 민간경찰을 가리키는 말로 미군에 의해 임명되었던 오키나와 치안조직을 말한다.

“요시코는 우치난추 여자잖아, 왜 우치난추의 남자와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아메리카나 조세나(조선인)는 괜찮다는 거야, 반대잖아, 반대가 당연한 것 아니야”

” ヨシコはウチナンチュの女だろ、どうしてウチナンチュの男とやったらいけないんだ、なぜアメリカやチョーセナ(朝鮮人)ならいいんだ、逆じゃないか、逆が当然じゃないか”(p.153)

‘조세나(チョーセナー)’는 오키나와에서 유통된 민족 차별어이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키치에게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즉,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전쟁 중에 가졌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과 미국에 대한 피해자 의식이 교착된 상태로 남아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유키치가 요시코를 이용하여 ‘조선인’에게 금전을 갈취하려 하는 것이다.

그 조세나는 가난한 여자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목돈을 뜯어내지 않으면 안 돼.

あのチョーセナーは貧乏人の女を人間とは思っていないんだ…… まとまった金取らんといかんよ(p.165)

요시코의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유키치는 피해자의식이 강한 만큼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자긍심이 강하다. 거짓으로 ‘조선인’에게 요시코의 폭행 혐의를 씌우고 돈을 갈취하려는 행동의 근거에도 역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에게서 돈을 갈취하려 하는 유키치에게는 어떠한 죄책감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다.

유키치는 요시코와의 결혼을 통해 성적, 경제적 수단으로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우치난추여자라는 이유를 들며 소유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유키치는 ‘조선인’이라는 상징적인 존재의 적대성에 의존하며 스스로 오키나와인이라는 주체로서 위치하고 요시코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요시코를 소유-교환이라는 공동성을 확보하며 ‘조선인’이라는 타자의 존재에 대비시키며 요시코라는 여성을 소유하고 매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오키나와 남성들이

다.³⁹⁾ 남성에 의해 소유되는 존재로서 등장하는 본 작품의 여성 등장인물들은 미국 점령하의 오키나와에 있어서 성폭행적인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로 등장한다. 요시코는 성폭행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기회 없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오키나와남성들에 의해 소유되고 매매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50년대의 오키나와는 미군에 의한 점령상태이며 현재까지도 많은 오키나와인들은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미군이 파괴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살포한 자귀나무는 강한 생명력과 자생력을 지니고 있다. 마타요시가 자란 우라소에시가 격전지 중 하나였음을 고려해 볼 때 자귀나무가 무성한 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메타포로서의 ‘자귀나무’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자귀나무와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채 굳건하게 살아가는 오키나와인들의 모습을 중첩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을 통해서 ‘자귀나무’가 전쟁의 흔적을 뒤덮은 것처럼, 고통스런 전쟁의 기억과 상처의 흔적을 덮고 살아가려는 모습과 자귀나무의 강한 생명력처럼 오키나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한 집결력으로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귀나무’는 전후의 오키나와인들 자신을 표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9) 新城郁夫(2007)『到来する沖縄—沖縄表象批判論』インパクト出版会 p.164

3.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

'조선인'의 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으로 마을사람들 사이에는 유령이 나오는 곳으로 소문나 있다. '조선인'의 요청으로 혼자서 다시 '자귀나무 저택'을 찾은 '나'는 뜻하지 않은 '조선인'의 고백을 듣게 된다. '조선인'은 전쟁 당시 일본군의 군부로 강제징용되어 비행장 건설에 동원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미군의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그에게는 고향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오키나와에서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일본군과 함께 이동해 버린 강소리와는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만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8년간 그녀의 행방을 찾아 헤매던 중, 매춘업소에서 일하는 그녀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온다.

나는 소리가 아직 사람을 응시할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 것을 알고 안심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손가락 세 개를 세웠다가 네 개를 세웠다가 하며 여주인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값을 매기고 있었던 것이겠죠. 나는 이 여자의 낙적(落籍)을 하고 싶다고 여주인에게 말하고, 상식적인 가격의 열배를 제시했습니다. 여주인은 나를 잠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私は小莉がまだ人を見つめる力を失っていないのを知ってほっとしました。しかし、その間にも指を三本立てたり、四本立てたりして、女將の顔色をうかがうのです。値ぶみをしていたのでしょう。私はこの女の身受けをしたいと女將に言い、多分、常識の十倍の金額を示しました。女將はしばらく私を見つめていました(p.179)

상기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로 징용되었던 여성들은 종전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키나와에 남아 술집이나 매춘업소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여성의 몸값을 매기고 낙적(落籍)을 위해 흥정을 하는 것은 전후 오키나와에 성매매 문화가 확산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약혼녀를 집으로 데리고 온 '조선인'은 어이없는 이유로 그녀를 살해해버리고 만다. 강소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강하게 거부한 사실에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해 버리고 말았으며, 그 시신을 저택의 마당에

묻은 것이다. 다음 인용은 강소리를 살해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제가 살짝 어깨에 손을 올리자, 소리는 돌연, 도망쳤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어가 대나무 숲의 독을 기어오르려던 소리의 뒷 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소리는 젖은 땅에 발이 미끄러져, 잡고 있던 대나무가 튕겨져 내 눈을 세계 쳤습니다. 나는 고통을 참았지만 눈물이 흘러 시야가 흐려져 어깨를 잡으려던 것이 소리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그것을 잡아 흔들며 한마디만 해줘! 라고 애원했습니다. 소리는 찢어질듯한 비명을 지르고, 뒤를 돌아보자마자 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양손에 이상한 힘이 생겨났습니다. 소리는 전신의 힘을 빼고 나에게 기대어 있었습시다만 나는 한동안 목을 졸랐습니다. 소리는 격렬하게 날뛰었지만, 그것은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광기의 힘에 깜짝 놀랐을 뿐인지도 모릅니다.

私がそっと肩に手をおくと、小莉は突然、立ち逃げました。私は裸足でかけおり、竹林の土手を這い上がろうとしていた小莉の上着の裾をつかみました。すると、小莉は濡れた土に足がすべらし、つかんでいた竹が大きくはね、私の目をしたたか打ちました。私は痛みをこらえましたが、涙があふれて、視野がぼやけ、肩をうかんだつもりが長い髪をひっぱっていました。私はそれをゆり動かし、一言いって来て!と哀願しました。小莉はつぶれたような悲鳴をあげ、振り返りざま、私の顔につばを吐きかけました。私は小莉をひきずりおろしました。両手に異常な力が出ました。小莉は全身の力を抜いて、私にもたれかかっていたましたが、私は長い間、首を締め続けていました。小莉は激しく暴れましたが、あれは逃げるためではなく、私の狂気の力にびっくりしただけかもしれません。(p.184)

자신도 모르는 힘에 의해 강소리를 살해한 ‘조선인’은 이후 망령이 되어 나타나는 강소리의 존재에 대해 고백한다.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시스템 속에서 ‘위안부’생활을 강제당한 강소리는 모든 기억을 잃은 상태이다. 강소리에게 자신을 인지해주길 요구하는 ‘조선인’은 ‘위안부’로서의 체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강소리가 결국 ‘조선인’의 손에 살해되고 마는 비극을 그리고 있다. 이로써 강소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목소리’를 영원히 빼앗기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이 강소리의 목소리를 완전히 빼앗아버린 사실에 대해 신조 이쿠오는 『자귀나무 저택』이 “문학에 의한 레이프라는 사태를 반복적으로 현재화”시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들의 목소리를 공백으로 비워둠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그녀들의 목소리에 주

의를 촉구하는 역설적인 가능성도 내포한 소설이라 평가하고 있다.⁴⁰⁾

이와 같이 강소리는 ‘위안부’였던 여성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위안부’로서의 삶의 고통을 분유(分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강소리가 ‘조선인’에게 살해된 후, 망령이 되어 나타난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집은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죠? 괜찮습니다. 아마도 조선인한테는 망령이 둔갑해서 나타나지 않겠지요. 이 바닥에 묻혀있겠지요. 두 명의 일본병. 머물고 가지 않겠습니까?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오키나와인에게 총과 검으로 갈기갈기 찢었다고 하니까요

この家に幽霊が出るという噂でしょう？大丈夫ですよ 多分朝鮮人には化けて出ないでしょう。この床下に埋められているらしいですよ。二人の日本兵...あなた泊って行ってみませんか 出るかもしれませんよ、沖縄人に銃や剣で切りぎざまれたというんですから(p.177)

망령이 ‘조선인’이 아닌 오키나와인에게 출현할 것이라는 소문의 근거에는 오키나와전에서 미국인보다 일본인에 의해 위협받았던 주민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인에 의한 참살이라는 이야기가 사실로써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본병의 망령은 일본과 오키나와 사이에 생겨난 차별의식에 의한 원한 감정을 공유하는 마을공동체 안에서 환기되고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이다.⁴¹⁾ 이와 같이 소설은 망령의 존재를 통해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역사의 어둠 속에 묻히고 만 수많은 희생자를 상기시키고 있고, 오키나와전에서 일본군에 의해 차별적 대우를 받았던 오키나와인의 의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귀나무 저택’에 묻힌 백골에 대해 ‘조선인’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저 우물 안에는 두 구 정도의 백골이 잠겨있습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계절에는 바닥이 드러나 비쳐 보입니다. 당신들은 뼈라고 하면 오키나와 주민인가, 미군인가, 일본병일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수백 수천 명의 조선인은 뼈마저도 썩어 버린 걸까요…….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선인의 뼈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정체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40) 新城郁夫(2007)『到来する沖縄—沖縄表象批判論』インパクト出版会 p.148

41) 村上陽子(2014)『<亡霊>は誰にたたるか:又吉栄喜『ギンネム屋敷』論』(『地域研究』3 沖縄大学地域研究所) p.125

제대로 위령탑, 최근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만, 그 탑에 납골해 주겠지요. 다만 안에서는 조선인의 뼈와 일본병, 오키나와인의 뼈가 싸움을 해도, 미래, 이 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본병과 오키나와인의 뼈에 헌화를 하고 묵념을 하겠지요. 영원히…….

あの井戸の中にも二体ほどの百骨が沈んでいるのですよ。雨の少ない季節には底が透けて見えます。あなた方は骨といえば、沖縄住民のか、米兵のか、日本兵のか、としか考えませんね、じゃあ、何百何千という朝鮮人は骨まで腐ってしまったのでしょうかね。……だが、考えようによっては、朝鮮人の骨は幸福かもしれません。正体がわからなくなるんですから。ちゃんと慰霊の塔。近頃つくられはじめているようですが、その塔に納骨してくれるんですからね。ただ、中で朝鮮人の骨と日本兵や沖縄人の骨が喧嘩をしても、将来、この塔を訪れる人達は日本兵と沖縄人の骨に花束を、黙禱を捧げるでしょうね。永久に……。 (p.186)

‘조선인’이 ‘나’를 향해 “당신들은 뼈라면 오키나와 주민인가, 미군인가, 일본군인가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럼 몇 백, 몇 천이라는 조선인은 뼈까지 썩어버린 걸까요”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이것은 물론 전쟁의 희생자로서 조선인의 존재가 망각되고 있다는 사실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⁴²⁾ 나아가 무라카미 요코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망령이 되어 나타날 수 없을 정도로 망각의 심연에 가라앉은 수많은 망자들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장면이기도 하다. 망령은 백골로도 찾을 수 없는 전쟁의 희생자를 의미한다. ‘조선인’의 독백에서는 망각될 수 있는 전쟁의 역사가 독백에 의해 여러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 비행장이 완성되면, 소리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꿈을 꾸고, 나는 비행장 건설에 정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이 마침내 완성되어 축하회를 열려고 하는 때에 파괴 작업으로 내몰렸습니다. 미군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은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다 부수기도 전에 본대는 소리를 데리고, 남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는 소리를 따라 도주를 피하고, 잡히고, 총미로 발이 몽개졌습니다. 얼마 후, 그 기지는 미군에게 공습을 받고, 함포사격을 당해, 잔류 일본병은 사멸 하였습니다. 나는 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미군의 군함을 타고, 해안가에 숨어 있는 일본병들에게 마이크로 항복할 것을 권했습니다. 전쟁도 완전히

42) 村上陽子(2014)「<亡霊>は誰にたたるか:又吉栄喜「ギンネム屋敷」論」(『地域研究』3 沖縄大学地域研究所) p.125

말기였습니다. 조선인이 일본군에게 대량학살당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항복시키는 것 보다 궤멸하고 싶다는 것이 내 본심이었습니다. (중략)그 대장도 남부에 도망가기 직전에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야스쿠니신사에 넣어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조선인을 말이지요, 우리들에게 살해당하는 것은 개죽음이지만, 미군과 싸우다 죽으면 야스쿠니 신사의 신이 된다고 말입니다.

この飛行場ができあがったら、小利と一緒に国に飛んで行けるなどと、まさに夢を見て、私は飛行場造りに情を出しました。ところが、飛行場がようやく完成して祝賀会をすやるかやらないうちに、とり壊す作業にかりたてられました。米軍に使用されないためにです。戦局は追いつめられていたのです。壊し終わらないうちに本隊は小利を連れて、南部の方に移動しました。私は小利を追って、逃走を図り、つかまり、銃尾で足を砕かれました。まもなく、その基地は米軍に空襲され、艦砲射撃され、残留の日本兵は死滅しました。私は米軍の捕虜になりました。しばらくのち、私は米軍の軍艦に乗って、海岸沿に隠れている日本兵達にマイクで降伏をよびかけました。戦争も完全に末期でした。朝鮮人が日本軍に大量虐殺された事実も確かめられていました。降伏させるより潰滅させたい、のが私の本心でした。(中略)あの隊長も南部に逃げる直前は血迷っていました。死んだら靖国神社に入れてやると言いだしたんですよ、朝鮮人ですよ、俺達に殺されるのは犬死にだが、米軍と戦って死ねば靖国神社の神になる、とですね。……(pp.182-183)

『자귀나무 저택』의 주된 플롯은 조선인이 ‘나’에게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조선인’은 비행장 건설을 위해 징용되어 조선인 군부로서 강제노동 당하던 중 전쟁이 끝나자 미군의 포로가 되었고, 미군의 도움으로 현재는 미군에 귀속되어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조선인’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 역사와 강제노동과 대량학살의 역사를 표상한다. 그리고 이것은 미군과 싸우다 전사한 군인을 신과 같은 존재로 추앙하는 야스쿠니신사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리는 간호부로 징용되었기 때문에 아직 간호부일 것이라고 수십 번도 중얼거렸습니다. 종군간호부라면 모두 위안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키나와의 여성이라도 그렇죠. 당신의 여동생은 징용되지 않았습니까? 여동생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도 오키나와인은 전쟁이 없는 곳에 소개되고 조선인은 격전지에 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분 상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때는 당신들이 옥쇄하지 못한 것이 억울했습니다. 3만인도 살아남은 것은 비겁합니

다. 한사람도 남기지 않고 스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키나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군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끌고 온 인간을 원망합니다.

小利は看護婦として徴用されたのだから、ただの看護婦なんだ、と何十回も呟きました。……従軍看護婦なんてみんな慰安婦じゃないんですか、そうでしょう？ 沖縄の女だってそうですよね、あなたの妹さんは徴用されませんでした？ 妹さんはいませんか、そうですか。でもですね、沖縄人は戦争のないところに疎開する、朝鮮人は激戦地にやってくる、何かおかしいとは思いませんか。いや、あなたの責任ではありません。気を悪くしないで下さい。……一時はあなた方が玉砕しなかったのが悔しかった。三十万人も生き残るのは卑怯だ、一人のこらずスパイだったんだと思いましたよ。しかし、私達をひっぱってきた人間を恨みます。(p.181-p182)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인’의 전쟁 체험자로서의 구술을 통해 일본제국의 침략의 역사 속에 배제되고 은폐될 수 있었던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의 존재와 조선인 집단학살과 같은 사실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희생자들이 역사에서 배제되고 은폐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오키나와현에서는 전후 50년을 기념하며 전쟁으로 인한 전역자들을 위해 적군, 아군과 관계없이 국적을 불문하고 군인, 민간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각명(刻銘)한다는 이념으로 평화의 탑이 만들어졌다. 평화의 탑의 비석에 각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화의 탑이 제막되어 1995년 6월의 각명판에 각명된 인수는 234,183명이다. 출신지역별 내역은 일본이 220,017명(오키나와인 174,110명 현외729,078) 외국은 14,166명(미국 14,005명, 대만 28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82명, 대한민국이 51명)이라고 되어 있다. 각인비에는 매년 새로운 전역자가 확인되면 그 이름을 각인하게 되어있다. 2008년 6월 23일 기준으로 전역자의 수는 240,734명으로 출신 내역은 일본이 226163명(오키나와인이 149130명 현외가 77,033명)외국은 14,571명(미국이 14,009명, 대만 34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82명 대한민국이 364명, 영국인이 82명)이다. 영국의 전역자가 새롭게 확인된 일과 대만과 북조선의 인수에 변화는 없지만 한국의 전역자 수가 다수 확인되어 각명되어있는 점이 주목 된다. 다만 그 한국과 북한, 대만의 각명판에는 공백 부분이 보인다.⁴³⁾

야카비 오사무는 기념비의 본래 의미에 대해 사건과 정보가 배제, 은폐되어 새

43) 屋嘉比収(2009)『沖縄戦、米軍占領史を学びなおす—記憶をいかに継承するか』世織書房 p.135

로운 의미의 이야기가 생성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한다. 평화의 탑에 존재하는 공백의 의미에 대해서 전사자들을 각명하기 위한 최초의 이념과는 달리 조선반도에서 강제연행된 많은 군부와 일본군 ‘위안부’가 공백으로 대표되듯이 각명판에 각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⁴⁾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귀나무 저택’은 다양한 전쟁 희생자들이 묻힌 공간이었다. 이러한 전쟁의 희생자들을 망령과 뼈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전쟁에서 비가시화된 피해자들을 가시화하고 있다. 국적불명의 전사자들이 혼재되어있는 장소로 전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구분 없이 모두 전쟁의 희생자들이다. 따라서 메타포로서의 ‘자귀나무 저택’은 국적 불명의 시신과 망령을 통해 비가시화된 망자들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의 근현대사의 모순과 상처가 압축되어있는 공간으로 ‘자귀나무 저택’은 오키나와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앞의 책 p.138

4. 유산 상속의 의미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귀나무 저택’은 국적 불명의 시신과 망령을 통해 비가시화된 망자들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인’이 자살 후 오키나와인 ‘나’에게 ‘자귀나무 저택’을 양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작품 속에서는 자살한 이유와 ‘자귀나무 저택’을 양도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소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전쟁 중 ‘나’라는 인물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뿐이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을 오키나와인 ‘나’에게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장에서는 ‘조선인’이 자살 후에 ‘자귀나무 저택’을 양도한 이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의 시점으로 서술되는 『자귀나무 저택』은 유일하게 ‘조선인’의 고백 부분만이 ‘조선인’의 시점으로 바뀌어 서술된다.

일본군에 끌려 나가 요미탄에서 오키나와인과 타이완인과 함께 비행장 건설에 강제 노동을 하고 있던 때입니다. 나는 직사광선이 눈에 들어가 눈이 부서 있었지만 수십 미터 앞에 선 군용 트럭에서 대장과 함께 내리는 여자가 소리인 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나는 곡괭이를 버리고,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까운 곳에 있던 일본병에게 잡혀 달려온 담당 반장에게 몹시 맞고, 발로 차이고, 웅크린 채로 원래 있던 자리로 끌려갔습니다. (중략)그 동료들은 그 후, 모두 동굴에 갇혀 학살당하고 더 이상 증인은 없습니다만……

日本軍にかりだされ、読谷で沖縄人や台湾人と一緒に飛行場建設の強制労働をさせられていた時です。私は直射日光と目に入る汗で目がくらんではいきましたが、十数メートル先に止まった軍用トラックから隊長と連れだって降りた女は小莉だ、とすぐ、わかりました。私はつるはしを捨て、走り出しました。だが、すぐさま近くにいた日本兵に捕まり、かけよって来た担当班長にしたたか殴られ、けられ、うずくまったまま、元の持ち場に引きずられました。(中略)あの仲間もその後、いっせいに洞窟に閉じ込められて虐殺され、もう証人はいないんですが……(pp.180-181)

‘조선인’의 생생한 기억을 통해 전쟁 중의 기지 건설을 위한 강제동원과 집단 학살의 역사가 상기되고 있다. ‘조선인’의 전쟁에 대한 기억을 듣는 상대가 오키

나와인 ‘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선인’의 이야기를 통해 상기되는 역사를 통해 전쟁의 기억에 대해 회피하던 ‘나’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게 한다.

전쟁 때 보던 광경은 아직도 생생하다. 중년의 조선인은 울부짖으며 양손과 양발을 뒤에서 잡고 있는 4명의 오키나와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날뛰었다. 조선인의 별거벗은 마른 가슴을 총검으로 천천히 문지르고 있던 일본병은 갑자기 엷은 웃음을 지우고 스파이라며 이를 갈았다. 그 직후 조선인의 가슴 깊이 총검을 꽂고, 심장을 도려냈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기계가 빼걱거리는 듯한 조선인의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되살아난다.

戦争の時に見た光景はまだ生々しい。中年の朝鮮人は泣きわめきながら、両手と両足を後ろからつかまえている四人の沖縄人の手をふりほどこうと暴れていた。朝鮮人の瘦せた裸の胸を銃剣でゆっくりとさすっていた日本兵は急に薄笑いを消し、スパイ、と歯ざしりをした。その直後に朝鮮人の胸深く銃剣を刺し込まれ、心臓がえぐられた。私は固く目をつぶったが、あの機械の軋むような朝鮮人の声は今でも耳の底によみがえる。(p.172)

일본병에 의한 조선인 살해 장면을 회상하는 ‘나’는 ‘조선인’의 전쟁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조선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당사자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공감을 통한 당사자성은 전쟁 중의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조선인은 전쟁이야기를 했다. 나는 잊으려고 하고 있는데……. 조선인의 죄악은 이것이다. 덕분에 나는 조선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아이를 떠올려 버려서 얼굴에 핏기가 없어졌다.

朝鮮人は戦争の話をした。私は忘れようとしているのに……。朝鮮人の罪悪はこれだ。おかげで、私は朝鮮人の話を聞きながら、私のを思いおこしてしまい、顔中に血の気がひいた。(p.188)

조선인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땅에 묻힌 것은 내 아들만이 아니다. 젊은 아가씨도 있다. 무수히 많다…….

朝鮮人の話は嘘っぱちじゃない、苦しんでいるんだ、と考えた。土に埋まっているのは息子だけじゃない。若い娘もいる。無数にいる……。 (p.189)

‘조선인’의 전쟁 이야기가 ‘나’의 묻어두었던 기억을 자극하고 전쟁의 기억과 아픔을 공유한다. 자신만이 전쟁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던 ‘나’는 전쟁의 피해자인 동시에 또 다른 민족에게는 자신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앞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조선인’의 전쟁 체험자로서의 구술을 통해 침묵으로 묻었던 역사의 기억이 재현됨으로서 은폐된 역사와 희생자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있다. 신조 이쿠오는 전쟁 피해자인 오키나와인이라는 안정된 동일성이 ‘조선인’이 말하는 전쟁 이야기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위기를 맞고, ‘조선인’은 오키나와인이 잊고 싶어 하는 전쟁의 기억의 공백에 징용된 일본군‘위안부’와 조선인 군부들의 존재가 깊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자귀나무 저택’에 묻혀 있는 ‘위안부’ 피해자인 강소리와 ‘조선인’은 자신의 과거를 아는 ‘나’의 존재가 없다면 역사 속에서 배제되고 은폐될 수 있는 것이다. 전쟁의 기억을 ‘나’에게 말함으로써 기억을 공유하고, ‘나’로 인해 계속해서 계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곧 듣는다는 행위가 기억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무의식 속에 억제되고 있는 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제시함과 동시에 잊고 싶은 사실의 상기가 혼재되고 있는 것이다.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말이라는 매개가 ‘양극의 간극’을 오가며 기억의 상기가 어떠한 관계를 낳게 되고 또 무엇을 문제로 삼는가 하는 점을 청취라는 작업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이 말로서 상기된다는 것은 관계성을 수행적으로 생성하는 일이기도 하다.⁴⁶⁾ ‘조선인’의 기억은 이야기, 즉, 언어를 통해 ‘나’에게 전도된다. ‘나’와 ‘조선인’의 기억이 공유되는 과정에는 공통어로 ‘표준어’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자, 그 아이의 할아버지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표준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함께 왔습니다.

じゃあ、あの娘の祖父にちゃんとあげます。あの祖父は標準語がよく話せませんので、私と一緒に来ました。(p.169)

45) 新城郁夫(2007)『到来する沖縄—沖縄表象批判論』インパクト出版会 p.149

46) 도미야마 이치로(2012)『오키나와 전쟁 트라우마와 냉전』(『한국학연구』(28)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원) p.12

유키치가 ‘조선인’의 성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아사토 할아버지와 ‘조선인’에게 배상금을 받기 위해 ‘나’가 합류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표준어’를 구사하는 점이었다. 당시 오키나와에서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학교 교육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키나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신체화된 언어가 아니었다.⁴⁷⁾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조선인’과의 교섭의 중요한 조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는 조선인에게는 ‘표준어’를 통한 자신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것이다.

언어를 통한 기억의 공유는 타자에 의해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분유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없었던 것이 되어버린다. 집단적 기억이나 역사의 언설을 구성하는 사건을 체험하는 일이 없는 타자들이기 때문에 기억의 분유 없이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된다.⁴⁸⁾ ‘나’가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는 매개 역할을 하는 ‘조선인’의 전쟁에 대한 고백은 자신의 기억뿐만이 아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인 군부와 일본군 ‘위안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오키나와의 전쟁 기억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자귀나무 저택’이 오키나와인 뿐만 아니라 국적불명의 모든 피해자들의 은폐될 수도 있는 역사를 표상한다고 생각할 때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조선인들과 ‘자귀나무 저택’에 망령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피해자들의 존재를 세상에서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에게 ‘자귀나무 저택’을 증여함으로써 세상에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자귀나무 저택’을 ‘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억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타자의 기억은 외부세계에 그대로 방치되어 역사로부터 망각되어지는 것이다. ‘조선인’의 전쟁의 기억을 통한 ‘나’와의 전쟁의 기억의 공유로 인해 역사 속에서 망각될 수 있는 조선인 군부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가 현재화 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오키나와 전쟁사와도 상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1971년 6월 『오키나와현사 제9권 오키나와전 기록1(沖繩県史第9巻 沖繩戦記

47) 屋嘉比収(2009)『沖繩戦、米軍占領史を学びなおす—記憶をいかに継承するか』世織書房 p.109

48) 岡真理(2015)『記憶/物語』岩波書店 p.75

録1)』이라는 오키나와전의 체험의 증언을 수집한 오키나와전 기록집이 간행되었다. 오키나와전 기록의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구장(區長)등의 중개로 공민관이나 구장(區長)의 집, 또는 공공기관의 회의실이나 숙직실 등에 주민들이 모여 학구 별로 좌담회를 열어 이야기를 듣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41지구의 461 명으로부터 이야기를 청취한 현사 제 9권에서는 오키나와 사료 편찬소의 직원들이 지구별로 청취한 상황을 ‘해설’이나 ‘주’를 삽입하여 설명하였다.⁴⁹⁾ 이러한 청취 작업 과정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인들에게 조선인들의 존재가 인식되고 있지 않았다. 오키나와전 체험의 증언이 수집된 오키나와전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조선인의 이야기는 누락되어 있었다. 현사의 전쟁기록 편찬의 이야기 중 조선인 군부의 일은 의제로도 제기되지 않았고 주민들로부터 전쟁 증언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조선인의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1972년 8월 「오키나와 타임스(沖繩タイムス)」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오키나와에 조선인들의 강제연행과 학살의 진상조사단을 소개하면서 “또 하나의 오키나와전의 실체”라는 특집을 다루고 있다. 이 내용 중 조선인 군부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 일본군이 전투를 반복하는 중에 무기도 들지 않고 계급장도 없는 군복을 입고 묵묵히 강제노동을 당한 군부와 일본군 위안부들의 무리 등은 전투의 종식과 함께 사라졌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오키나와인들에게 조선인들에 대한 기억은 전투의 종식과 함께 지워버렸다고 할 수 있다. 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선인에 대해 전쟁의 기억과 함께 지우게 되는 것이다. 오키나와인들의 전쟁에 대한 집합적 기억 속에서 배제되었던 조선인이라는 타자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1974년에 간행된 『오키나와현사 제10권 오키나와전 기록 2』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연행된 조선인의 관계하는 기술이 포함되었다.⁵⁰⁾ 오키나와전으로 인한 희생자의 기록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도 각인을 위한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전쟁의 체험자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전후세대의 전쟁의 기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전후세대의 숙제로 남아있다. 전쟁을 체험한 자의 이야기를 듣는 일

49) 도미야마 이치로(2012)『오키나와 전쟁 트라우마와 냉전』(『한국학연구』(28)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p.11

50) 新城郁夫(2007)『到来する沖繩—沖繩表象批判論』インパクト出版会 pp.135-137

로부터 비체험자는 전쟁의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당사자성을 획득하게 된다. 전쟁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체험자와 비체험자의 공동 작업으로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전쟁의 기억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다. 전후세대가 오키나와전의 기억의 공유로 인해 오키나와전을 상대화하고 아시아에 대한 전쟁의 가해책임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된다.⁵¹⁾ 최근, 마타요시는 전쟁체험자가 줄어드는 것과 같이 자귀나무 숲이 오키나와에서 줄어들고 있고 무상한 시간과 사람들의 생활이 모르는 사이에 전쟁을 지워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⁵²⁾

마타요시뿐만 아니라 오키나와의 대표적 작가인 메도루마 슌(目取真俊)은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오키나와전에 대해 소설을 쓰는 이유를 오키나와전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부모가 살아온 역사를 공유하고 생생한 기억으로서 기록하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최후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으로써 전쟁체험을 계승하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전후세대로서의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오키나와전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⁵³⁾

신조 이쿠오는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일 없이는 오키나와에 있어서 전후 6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또, 전쟁의 기억을 재생하고 이어가는 일 없이는 우리들의 다음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전쟁의 기억의 계승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전쟁의 기억을 왜곡하고 전쟁 증언자의 존재가 부인되고 있다. 전쟁의 기억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증언을 계속 듣고,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응답의 왕복이 있어서야 비로소 말로써 처음으로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증언자의 증언이 계속 전달되어야 한다.⁵⁴⁾ 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사회의 전쟁체험자는 매해 감소하고 있다. 전후세대가 일본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직접적인 전쟁체험이 아닌 전쟁의 기억의 계승이 문제로 남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조선인’이 ‘자귀나무 저택’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나’에게 양도한 이유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쟁의 기억의 계승이라고

51) 屋嘉比収(2009)『沖繩戦、米軍占領史を学びなおす—記憶をいかに継承するか』世織書房 p. iv

52) 又吉栄喜(2015)『時空を超えた沖繩』燦葉出版社 p.146

53) 目取真俊(2005)『沖繩「戦後」ゼロ年』NHK出版 p.70

54) 新城郁夫(2007)『到来する沖繩—沖繩表象批判論』インパクト出版会 pp.203-204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인인 ‘나’를 상대로 한 ‘조선인’의 고백은 전쟁의 은폐된 역사가 가시화되며 비가시화되었던 전쟁의 희생자들의 존재를 상기시켰다. ‘조선인’은 망령으로도 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 속에 망각되어버린 은폐되고 배제된 전쟁 희생자들을 뼈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뼈와 망령으로 상징되는 전쟁의 희생자의 존재를 ‘조선인’은 ‘나’에게 전한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타자인 ‘나’는 ‘조선인’의 기억에 다가가게 되고, ‘조선인’을 대신한 당사자성을 획득하며, ‘조선인’이 기억하고 있는 전쟁의 기억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선인’의 기억뿐만이 아닌 자신이 잊으려고 노력했던 오키나와전에서의 기억을 환기시킨다. ‘자귀나무 저택’이 상징하듯 전쟁의 은폐되고 망각될 수 있는 기억을 증여받은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조선인’이라는 제3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오키나와의 전쟁의 기억의 계승의 중요성을 상대화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들이 전쟁의 피해자로 인식했던 ‘나’는 ‘조선인’의 이야기를 통해 가해자로서 인식하게 되고 전쟁의 가해 책임문제까지 인지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일본이 마주해야 할 전쟁의 기억과 표상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또, ‘자귀나무 저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소설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전후 세대에게 전쟁의 기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마타요시 에이키의 『자귀나무 저택』은 ‘위안부’를 소재로 하여 오키나와문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문단에서도 조선인 군부와 일본군 ‘위안부’를 등장시킴으로써 오키나와인들의 피해자 의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의미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다.

지금까지 『자귀나무 저택』에서의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오키나와인들의 피해자 의식에서 가해자로 전도되는 해석을 포함한 위안부의 관점을 통한 분석이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이 상징하는 바를 오키나와의 근현대사의 상흔과 모순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자귀나무’와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기에 앞서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50년대의 오키나와사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설의 시점은 점령정치가 종식된 1953년이지만, 시정권이 미군에게 넘겨진 오키나와의 경우, 미군에 의한 점령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태평양 전쟁에 패배한 일본은 미국의 점령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최고사령부를 설치한 간접 통치 형태를 취한 일본 본토와는 달리 오키나와는 미군이 직접통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간접통치가 이루어진 일본 본토에 비해 직접통치하에 위치한 오키나와인들에게는 미군의 이미지는 부정적이었다. 소설 속에서도 미군에 관한 오키나와인들의 인식이 묻어나고 있다.

‘나’를 비롯한 유키치와 아사토할아버지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조선인’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미군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인’을 미군과 동일시하며 미군의 폭력적인 이미지와 중첩시켜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는 점령시기의 오키나와의 실상과 미군에 대한 인식이 등장인물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는 1950년대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오키나와의 현실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장에서는 메타포로서의 ‘자귀나무’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등장인물 분석을

통해 ‘자귀나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전후 8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전쟁으로 파괴된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군이 파괴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살포한 자귀나무는 강한 생명력과 자생력을 지니고 오키나와 전역에 뿌리내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는 자들이라는 점이다. 전쟁으로 인해 아들을 잃은 ‘나’는 전쟁이 끝나자 아내인 쓰루를 등지고 하루코와 동거생활을 한다. 전쟁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나’는 전쟁이 끝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쓰루를 보며 자신도 전쟁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하루코를 찾아간다. 쓰루와는 다르게 말 수가 적은 하루코는 전쟁의 피해자이지만 전쟁의 기억을 상기시키지 않는다. 말 수가 많아지고 다변적으로 변해가는 쓰루를 전쟁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매개로 인식하고 전쟁과 쓰루를 동일시하며 쓰루를 멀리하려고 노력한다. 요시코와 아사토할아버지는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유일하게 생존한 혈족관계이다. 그러나 생존을 위해 매춘까지 해야 하는 전쟁의 피해자로서 성폭행을 당한 손녀딸을 빌미로 ‘조선인’에게 금품을 갈취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조선인’이 요시코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했던 유키치는 뚜렷한 직업 없이 오키나와인이라는 동일성을 권리로 주장하며 요시코를 소유하고 매매하려고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성적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오키나와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인해 ‘조선인’에게 배상금을 받아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오키나와인들의 피해자 인식이 전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등장인물들의 분석을 통해 전쟁의 흔적을 지우고 살아가는 오키나와인들의 모습과 전쟁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뿌려진 ‘자귀나무’와 중첩됨을 알 수 있었다. 미동조차 하지 않는 단단한 뿌리와는 대조적으로 섬세한 잎을 가지고 있는 ‘자귀나무’를 전쟁의 기억을 잊고 살아가는 오키나와인들의 모습을 메타포로써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자귀나무 저택’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소설은 ‘조선인’이 ‘나’에게 전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된 플롯이다. ‘조선인’은 군부로 강제징용되어온 사실과 자신의 약혼녀인 강소리를 전장에서 만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나’는 잊으려고 노력하던 전쟁의 기억을 환

기한다. ‘조선인’과 ‘나’의 전쟁의 기억이 환기되는 장소로써 공간적 의미에 주목하여야 한다.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자귀나무 저택’은 오키나와전을 통해 전사한 비가시화된 피해자의 존재의식에 대한 문제 제기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인’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비가시화된 전쟁의 희생자들을 망령과 뼈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조선인의 고백을 통한 ‘나’의 기억의 환기는 오키나와전 기억에 대한 공유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자귀나무 저택’은 전쟁 체험자의 기억이 응집된 공간적 의미를 띠는 장소로 오키나와가 경험해온 역사의 상처와 모순이 복합적으로 혼재하는 공간으로 상징되고 있다. 전쟁 책임문제를 비가시화된 피해자들이 묻혀있는 ‘자귀나무 저택’을 증여함으로써 기록되지 않고 잊혀질 수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자귀나무 저택’의 ‘조선인’이 ‘나’에게 증여한 이유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귀나무 저택’의 증여는 자귀나무 저택에 망령으로 나타나는 전쟁의 피해자들의 존재가 배제되고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세상에 전달하기 위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자귀나무 저택’을 ‘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전쟁의 체험담을 듣는 일로부터 비체험자는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게 되고 당사자성을 획득하게 된다. 전쟁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체험자와 비체험자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이 전쟁의 기억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언급되지 않는 ‘자귀나무 저택’의 처리에 대해서는 전쟁기억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쟁 체험자의 생존자 수가 현저히 감소한 현재, 전후세대의 전쟁의 기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후세대의 숙제로 남아 있다. 마타요시를 비롯한 오키나와 작가들이 전쟁의 체험자의 기억의 계승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소설의 소재로 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마타요시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 온 자연경관을 통해 오키나와 전역에 분포되어있는 자귀나무를 오키나와인으로 표상하고, ‘조선인’이라는 타자를 통해 전전(戰前)부터 이어오는 오키나와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의식’을 가해자로 전복시킨다. 때로는 오키나와인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조선인’을 통해 조선인 군부와 ‘위안부’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오키나와전에 동원되었던 비가시화된 희생자들의 존재와 오키나와전으로 인해 전사한 민간인들의 존재에 대해 역사의 인식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조선인의 이야기를 통해 오키나와 역사를 상대화하며 역사인식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역사의 계승에 대한 문제인식이 제시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오키나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사람인 마타요시의 국내연구는 대부분이 『자귀나무 저택』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후 보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마타요시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IV. 참고문헌

<국내서>

- 개번 매코맥, 노리마쓰 사또코/정연신 역(2014)『저항하는 섬, 오키나와』창비
- 다우베 드라이스마/정준형 역(2006)『기억의 메타포』에코리브르
- 마루카와 데쓰시/장세진 역(2010)『냉전문화론』너머북스
- 아라사키 모리테루/백영서 역(2013)『오키나와, 구조적 차별과 저항의 현장』창비
- 아라사키 모리테루/정영신, 미야우치 아키오 역(2008)『오키나와 현대사』논형
- 정근식, 전경수, 이지원(2008)『기지의 섬, 오키나와, 현실과 운동』논형
- 정근식, 주은우, 김백영(2008)『경계의 섬, 오키나와, 기억과 정체성』논형
-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문학비평용어사전.하』새미

<논문>

- 곽형덕(2016)「마타요시 에이키 문학에 나타난 “타자”와의 교섭과정: “오키나와인 주체의 자세”를 묻다」(『탐라문화』(49))
- 도미야마 이치로(2012)「오키나와 전쟁 트라우마와 냉전」(『한국학연구』(28)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 소명선(2016)「오키나와문학 속의 일본군 ‘위안부’ 표상에 관해」(『일본문화연구』(58))
- _____ (2012)「마이너리티문학 속의 마이너리티 이미지-재일제주인문학과 오키나와문학을 중심으로-」(『일어일문학』(54))
- _____ (2011)「오키나와문학 속의 ‘조선인’-타자 표상의 가능성과 한계성-」(『동북아문화연구』(28))
- 조정민(2010)「오키나와(沖繩)가 기억하는 ‘전후(戰後)’ : 마타요시 에이키 「자귀나무 저택」과 김정환 「오키나와에서 온 편지」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45))
- _____ (2005)「戦後沖繩と「朝鮮」をめぐる問題-又吉榮喜「ギンネム屋敷」を中心に-」(『日本学報』(65-2))

<국외서>

- 新崎盛輝(2016)『日本にとって沖縄とは何か』岩波新書
_____ (2015)『沖縄現代史 新版』岩波新書
- 石原千秋ほか(1991)『読むための理論—文学・思想・批評』世織書房
- 岡真理(2015)『記憶/物語』岩波書店
- 岡本恵徳(2007)『「沖縄」に生きる思想』未来社
_____ (1996)『現代文学にみる沖縄の自画像』高文研
- 桜沢誠(2016)『沖縄現代史』中公新書
- 新城郁夫(2014)『沖縄の傷という回路』岩波新書
_____ (2007)『到来する沖縄—沖縄表象批判論』インパクト出版会
- 花田俊典(2006)『沖縄はゴジラか—〈反〉・オリエンタリズム／南島／ヤポネシア—』花書院
- 又吉栄喜(2015)『時空超えた沖縄』燦葉出版社
_____ (1981)『ギンネム屋敷』集英社
- 宮台真司、仲村清司(2014)『これが沖縄の生きる道』亜紀書房
- 目取真俊(2005)『沖縄「戦後」ゼロ年』NHK出版
- 屋嘉比收(2009)『沖縄戦、米軍占領史を学びなおす—記憶をいかに継承するか』世織書房
- 喜納育江、矢野恵美(2015)『沖縄ジェンダー学 2 法・社会・身体の制度』大月書店

<논문>

- 秋山駿(1980)「第4回すばる文学賞発表 選評 小説らしきの罪」(「すばる」12)
- 井上光晴(1980)「第4回すばる文学賞発表 選評 文学と「書き手」の関係」(「すばる」12)
- 黒井千次(1980)「第4回すばる文学賞発表 選評 硬直化の傾向」(「すばる」12)
- 田久保英夫(1980)「第4回すばる文学賞発表 選評 選択」(「すばる」12)
- 中井真健一(2015)「又吉栄喜「ギンネム屋敷」論—「悲鳴」としての「握りこぶし」」(「立教大学日本大
学」15)
- 又吉栄喜(1980)「第4回すばる文学賞発表 受賞のことば」(「すばる」12)
- 三浦哲郎(1980)「第4回すばる文学賞発表 選評 感想」(「すばる」12)
- 村上陽子(2014)「<亡霊>は誰にたたるか:又吉栄喜「ギンネム屋敷」論」(「地域研究」沖縄大学地域
研究所 3)

『差別の心理描く敗戦直後の沖縄舞台に—『ギンネム屋敷』又吉栄喜著』(『沖縄タイムス』1981.01.24.)

<인터넷 자료>

네이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8523200> 검색일자: 2016/10/01

위키백과 홈페이지 <https://ja.wikipedia.org> 검색일자: 2016/10/01

<ABSTRACT>

A Discussion on 『*The Ginnemu Yashiki*』 by Matayoshi Eiki

- Symbolic Meanings of the 'Ginnemu Trees' and the 'Ginnemu Yashiki' -

Bak, Yun-Hui

Jeju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cademic Advisor So, Myung-Sun

This thesis examines “*The Ginnemu Yashiki*” (1981) written by Matayoshi Eiki, who represents contemporary Okinawan literature, in order to study the symbolic meanings of the 'ginnemu trees' and the 'ginnemu yashiki', which is also the title of the novel.

“*The Ginnemu Yashiki*”, winner of the 4th Subaru Literature Prize, raises the problem of awareness concerning the victim consciousness of Okinawans by featuring a Korean and a 'comfort woman' for the Imperial Japanese Army. In this regard, the novel is highly regarded in Okinawan literary circles. Most of the preceding research focused on the structure of multi-layered discrimination in Okinawan society and highlighted the discrimination faced by Koreans and 'comfort women'. The study,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 investigates the meanings, the 'ginnemu trees' and the 'ginnemu yashiki', as metaphors, attempt to convey through the scars and paradoxes of contemporary Okinawa.

To that end, the first chapter carefully examines Okinawan society in the 1950s. During the American occupation, unlike mainland Japan, Okinawa was

completely under US rule. Even after the occupation period ended, the US military bases expanded and intervened in the lives of Okinawa people in a variety of forms; imagery of the U.S. and the US Army are recognized as representing violence and negativity throughout the novel.

The second chapter reveals that the Okinawa people, who have scars from war, are the 'ginnemu trees' themselves. This conclusion is the result of studying the novel with a focus on the fact that all the characters of the novel bear the scars of war. To cover up the fields devastated by war, 'ginnemu seeds' were scattered all across Okinawa. As such, the suggestion can be made that the trees represent the lives of the robust people of Okinawa who survive while holding the wounds of war in their hearts.

The third chapter looks into what the 'ginnemu yashiki' attempts to portray. In the novel, the confession of a 'Korean' reminds me of 'my' memories of war, and the victims of the battle of Okinawa, who have been invisible, become visible. In addition, light is shed on some parts of the history of the battle of Okinawa, including compulsory mobilization of Koreans, genocide, and compulsory mobilization of comfort women. The 'ginnemu yashiki' as a metaphor could be a place where existence of the invisible dead are recalled through the souls and corpses of unknown nationality. In this regard, it can be assumed that the 'ginnemu yashiki', a place where the paradoxes and scars of the contemporary history of Okinawa are condensed, symbolizes Okinawa itself.

The fourth chapter investigates the reason why the 'Korean' gave 'me' the 'ginnemu yashiki'. By offering 'me' the 'ginnemu yashiki' which symbolizes a place where the scars of war are entangled, the 'Korean' attempts to pass down the memories of war and its victims. The novel doesn't mention how the 'ginnemu yashiki' will be handled.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the issue of how to pass on the memories of war and its victims to the next generation remains unsolved.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Ginnemu Yashiki*” depicts the images of Okinawa people symbolically, using the nature of postwar Okinawa. The novel also raises the problem of awareness regarding the victim consciousness of Okinawans and the postwar issue of responsibility in regards to the victims of war.